

FINDHORN GARDEN

핀드혼 공동체 체험기②

자유 · 사랑 · 공동체

황대권

식물과의 대화를 통해 척박한 모래땅 핀드혼에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의 농장을 일궈낸 핀드혼 초기 개척자 5인의 이야기는 국내에 '핀드혼의 기적'(늘푸름 간)이란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본떠 일본의 후카노 기미코라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한 성공적인 실험은 <지금여기 3-2호>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지금 현재 핀드혼의 생활상을 다루며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에 점을 맞춰 소개해봅니다. 필자인 황대권님은 매우 이경옥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글과 사진을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글을 받은 것은 2월말이었으나 오로빌 공동체 체험기가 연재중이던 관계로 이제서야 신겨 됨에 필자의 양해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에코 빌리지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 다시 나의 개인적인 핀드혼 경험을 얘기해야겠다. 핀드혼은 북 과 서 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변마을이다. 마을 중간쯤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평한 사구(Sand Dune)로 되어 있다. 핀드혼을 둘러보는 첫 날. 마을에서 동떨어진 풍력 발전기에서 바닷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간에 광대한 지역이 모두 고스(Gorse)라는 나무로 채워져



FINDHORN GARDEN

있는데 이 나무는 영국의 해안
가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일종의 침엽수로서 그야말로 나
뭇잎이 바늘 끝 같다. 다 자라
야 사람 키만큼 밖에 안 크다.
이 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도무
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사람
이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이 나무들 속에
서는 자랄 수가 없다. 정말 징
그러운 나무다. 그래서 나는 이



핀드혼 해안가의 헤더 숲. 사진으로는 맛있게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서면 굴곡진 사구 위에 펼쳐진 색의 잔치가 보는 이의
뱃을 잇어간다.

나무에 고슴도치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일제히 노란 꽃을 피워대는 것이 정말 장관이다. 이곳의 고스숲에는 잔디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나고 죽고 또 났는지, 폭신하기가
응접실의 소파는 저리가라다. 발로 광광 밟아 보아도 땅바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 위에 동그란 토끼 똥이 엄청나게 깔려있다. 토끼가 똥을 얼
마나 많이 싸는지는 토끼를 길러봐서 잘 안다. 핀드혼 일대엔 정말로 토끼가 많
다. 토끼들 등쌀에 이곳의 정원은 모두 이중 삼중의 철조망을 쳐 놓았다.

고스 숲을 지나니 갑자기 일망무제의 황무지가 나타난다. 황무지라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칼라풀하다. 스코트랜드 특유의 헤더(Heather)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철나무와 비슷한데 잎 크기가 사철나무 잎의 1/4도 안 되고 가지
끝에는 손톱 만한 분홍색 꽃이 잘잘하게 맺혀 있다. 키가 겨우 발목 근처에나 올
까말까한 이것이 둥글둥글 무리를 지어 온 사구를 뒤덮었는데, 처음 이 광경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헉'하고 막히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야생의 들판
(Wilderness)이었다. 사람이 사는 마을 주변에 이런 '월더니스'가 있다니! 이 헤
더들판은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사구의 굴곡이 심해짐에 따라 더욱 험란한 장
관을 연출한다. 나는 이후로도 심심하면 찾아와서 이 황량한 아름다움에 젖어있
곤 하였다.

FINDHORN GARDEN

모 윌렛과의 만남

민톤 하우스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나흘을 보냈다. 오랜 떠돌이 생활에 지친 내게는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다. 하지만 이제 워크샵 날짜가 닥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방을 비워야만 한다.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웬 젊은이가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스위스 태생으로 이름은 '파비오'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키브츠에도 좀 있다가 인도의 한 아쉬람에서 6개월을 보낸 뒤 이리로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핀드혼을 떠난다. 스위스로 돌아가면 농사일에 도전해 보겠다고 자기 포부를 말한다. 나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깐 갑자기 친해진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본다. 이때 밖에서 택시 경적소리가 나자 부랴부랴 가방을 열더니 메모지에다 자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고 스위스에 오거든 연락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핀드혼 공동체 역사를 다룬 책 한권을 선물로 준다. 전날 책방에서 살까말까하고 망설이다가 그만둔 책이다. 나도 밥 먹고 바로 나가야 하니까 친절하게도 B&B(Bed & Breakfast) 한 집을 가르쳐 주며 그곳 주인 여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 고맙다고 말할 사이도 없이 짐을 들고 나가버린다.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친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본다. 확실히 핀드혼에는 무언가 베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짐을 꾸러 체크아웃을 하는데 데스크에서 공동체 단지 내에 있는 B&B 한군데를 또 가르쳐 준다.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가르쳐준 집으로 가기로 한다. 무거운 짐을 킁킁거리며 들고 나오니까 매니저가 와서는 자기 차로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이런 고마울 데가! 가보니 피닉스 상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단독 주택이다. 조금 전에 전화하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대신 문 앞에 키가 꽃혀 있고 그 위로 메모지가 하나 붙어있다. 결혼식에 가기 때문에 집을 비우니 오른쪽 방에 짐을 풀고 마음놓고 지내란다. 들어가 보니 작은 방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손님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가에 꽂힌 책들을 보니 거의 모두가 신비주의에 관한 것들이다.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가 걸려있는데 지형이 좀 이상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언가가 그린 미래의 세계지도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미국은 서부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아프리카도

FINDHORN GARDEN

절반이 날아간다. 제일 타격이 심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거의 80%가 물에 잠긴다. 우리 나라도 절반쯤은 날아간다. 대신 바다 여기저기에 새로운 대륙이 생겨난다. 내가 읽은 한국 예언가들의 예측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 무언가 엄청난 지질학적 변동이 있다는 점만은 같다. 재미있는 집에 온 것 같다. 주인 없는 집에 혼자 있기가 뭣하여 나도 메모를 남겨놓고 나가버렸다.

밖에서 저녁식사까지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모 윌렛(Mo Willet), 핀드혼 주민 협의회(Council) 주요 멤버로 7년째 이곳에서 살고있는 '고참'이다. 말쓰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신비주의에 탐닉할 분 같지가 않으며 행동은 거침없고 활달하다. 살아온 이야기를 대강 들어보니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분이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아온 귀적의 편린들로 장식해 놓았는데 젊었을 때는 테니스를 잘 쳐서 직업 운동선수로 나가려고 하였었다. 자신의 이름 '모'도 그 무렵 워블던 대회 최연소 우승기록을 세웠던 여자선수의 이름을 따서 고쳤었다. 드디어 그는 지역대회에서 우승하여 꿈에 그리던 워블던 구장에 섰다. 그런데 신은 그에게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모양이다. 첫 게임에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인데, 그 뒤로 수술을 여러 번 하였건만 결국은 다리를 약간 절개 되었었다. 결혼 두 번에 아이들 셋을 낳아 다들 결혼시키고 7년전부터 혼자 이곳에 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왔느냐고 묻는다. 나는 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에코 빌리지를 둘러보고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왔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등록은 했느냐고 묻길래 이미 며칠 전에 대금 지불을 포함하여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 참가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자기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사망에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대충 김새를 보니 저 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 같다. 이미 지불이 완료된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니 제발 그만 두라고 사정을 하였다. 할 수 없다는 듯 그제야 수화기를 놓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또 하나의 작은 방에 묵고 있는 데련이라는 여자가 들어온다. 삼 대 중반 무렵의 지적으로 생긴 웨일즈 출신 여자이다. 현재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회사업을

FINDHORN GARDEN

하는 활동가이다. 주로 하는 일은 여성들의 의식개발과 지위 향상에 관련된 것이다. 자기를 포함하여 친구 몇몇이 조그만 자선사업단체(Charity)를 조직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현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카드를 그려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단다. 대단한 여성들이다. 현재 영국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시월이면 다시 감비아로 간단다. 피곤해 보이는 Mo가 먼저 침실로 간 뒤에도 밤 도록 데런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TV 촬영에 관하여

다음날 오후 바닷가 산책을 갔다오니 모의 집에 손님 두 사람이 와 있다. 제레미와 엠마로 모두들 십여 년 넘게 산 고참들이다. 둘 다 공동체와 외부 사이의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단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대외창구인 셈이다. 이들은 무언가 흥미로운 일을 감춰두고 왔는지 싱글싱글하며 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본다. 제레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내가 한국 TV에 방영되어도 괜찮으냐는 것이다. 이게 무슨 아닌 밤에 흥두깨인가 싶어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다그친다. 자기네들에게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라며 자 지종을 이야기한다. 자기들이 기억하기에 내가 핀드혼에 찾아온 최 의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한국 국영 TV 촬영팀이 이곳에 올 것이며 또 그 주말에는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란단다. 한국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안 비치던 곳에 한꺼번에 세 무리의 한국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니 기막힌 우연이라는 것이다. 전에도 나라마다 이런 바람이 불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웨이브(Wave)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Japanese Wave, Brazilian Wave, Spanish Wave가 밀어 닥쳤다는 것이다.(이렇게 물결이 한번 몰아 닥친 이후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그 나라 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단다)

이제는 코리안 웨이브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냐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그건 그렇구, 그들은 한국의 촬영팀이 오게 되면 이곳의 어디를 안내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이곳에서 공동체

FINDHORN GARDEN

를 체험하는 장면을 찍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며 나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다. 나는 뭐 숨어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안 될게 뭐 있나 싶어 뜻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들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핀드혼 교육관에서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 내부를 외부에 공개해 본 적이 없다는 것과 한국 촬영팀의 촬영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공동체 스태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와서 촬영협조를 부탁하자 그룹 성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절반쯤은 상관없다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것은 내용상 개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므로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논의를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자명하다. 이 사실이 통고된 후 나는 우연히—그러나 내 생각엔 교육생의 일정을 잘 알고 있는 스태프들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핀드혼 커뮤니티 식당에서 KBS 촬영팀과 마주쳤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일주일에 한번 있는 ‘침묵의 식사’ 시간이었다. 이역만리 오지(?)에서 동포를 만났는데 말도 못하고 눈인사만 나눈 채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이 마치 어색하게 연출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서야 겨우 통성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나의 이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공동체 스태프들이 다 얘기한 모양이다. PD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을 건넨 젊은 친구가 묻는다. “며칠 후에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면서요?”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의 초청에 의하여 제가 감옥에서 겪었던 정신적, 심리적 변화과정을 이곳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얼마 전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다녀왔단다. 여기에 와서는 에코빌리지 취재를 마쳤으며 이제 북 아일랜드에 가서 한가지만 더 취재하고는 돌아갈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이곳의 사는 모습이 밤의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변함없는 일과 속에서 ‘신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말해주고, 프로그램 일정 때문에 간단한 눈인사만 나눈 채 식당을 빠져 나왔다.

FINDHORN GARDEN

공동체 프로그램

핀드혼에서는 공동체 생활 체험과 내면세계 탐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험주간(Experience Week)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다른 코스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코스를 밟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 현재 핀드혼 공동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스를 마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공동체 체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완전한 공동체 성원이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모든 프로그램이 유료이므로 결국 핀드혼 공동체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공동체 성원 충당과 비즈니스를 교묘히 결합시켜 놓았다. 해마다 신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4천여명이 프로그램에 등록한다고 하니 대단한 ‘장사’이다. 회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핀드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금의 80%가 이들 학생들부터 나온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뒤인 금요일에 끝난다. 금요일 저녁에는 교체되는 참가자들로 인해 조금 번잡스럽다. 그날 못 떠난 사람들은 하루를 더 묵고 떠나기도 한다. 첫 날 저녁이었다. 방에 짐을 풀어놓고 근방을 한번 둘러보려고 문을 나섰다. 이 교육장은 예전에 호텔이었던 것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서 건물 자체가 운치도 있고 주변경치도 괜찮다. 바로 앞의 골프장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눈앞이 시원하다. 나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 대를 꺼내어 입에 물었다. 그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웬 젊은 여자가 다가와 담배 한 대만 줄 수 없냐고 묻는다. 호젓한 저녁에 말동무가 생겼구나 싶어서 두말 않고 주었다. 불을 붙여 주고 나서 애연가이시냐고 물었다. 아니란다. 원래는 안 피운단다. ‘그런데 왜?’ 이유인즉슨 이렇다. 자기는 어제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인데 자기에게 닥친 소크가 하도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라도 한번 피우면 좀 가라앉으려나 하고 청하는 것이라 한다. 나는 속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하고 내심 놀랐다. 사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이런 류의 인성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연구도 하고 후배들과 함께

FINDHORN GARDEN

실험도 해보는 등 여기저기 주위들은 것이 많아 그다지 큰 기대는 않고 있었다. 그저 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다. 그녀의 얘기를 대충 들으니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특히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공동체 체험이 충격이 될 법도 하였다.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나는 그녀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고 숙소로 돌아왔다.



(사진 9) 공동체 체험교육이 행해진 교육관 전경. 오래된 호텔을 구입하여 개조한 집이다.

다음날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의 상견례가 있었다. 우리 그룹은 26명인데 남자라곤 나를 포함해 셋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들은 대부분 일터에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더 많다.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내면세계의 탐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그것은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외면세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참석자들을 국가별로 보니 참으로 다양했다. 독일, 스위스, 미국, 일본,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한국, 일본 참가자가 넷씩이나 되었다. 이중 둘은 나이든 아줌마이고 둘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1년생이다. 내가 영국을 따로 적었는데 이곳은 스코틀랜드이고 같은 영국이라도 서로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6명 중에 영국사람은 겨우 둘밖에 안 된다. 이것은 곧 핀드혼 공동체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한다. 나이와 직업, 사회적 배경이 각양각색이다. 재미있게도 전에 참가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권고해서 왔다는 사람이 둘이나 되었다. 이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언가 자기 삶에 있어서 새로

FINDHORN GARDEN

운 전기를 모색해 보려는 동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비싼 돈주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올 리가 없다. 소개를 하던 중 일본에서 온 학생 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것이다. '유카'라는 여학생은 고교시절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인 '아이미'는 영어를 전혀 못했다. 유카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기소개를 마친 아이미는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다. 대개 오전에는 공동체 내의 여러 작업반에 할당되어 일을 한다. 건물청소, 정원관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농장관리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핀드혼 공동체의 유지관리는 돈 내고 참가한 교육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후에는 주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인성훈련 프로그램이 행해졌다. 저녁시간에는 인성훈련과 함께 초청강사 시간이 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시간표가 상당히 빡빡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그중 인상깊었던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하겠다.



공동체 체험교육에 참가한 학생들

FINDHORN GARDEN

안내 천사와 함께한 명상

둘째날 오전에 ‘영적인 춤(Sacred Dance)’ 이란 프로그램을 마치고 명상의 집에 모여 ‘천사의 명상(Angel Meditation)’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천사’ 라고 하면 비기독교 전통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이지만 서구인들에게는 마치 우리의 삼신할미처럼 친근한 존재이다. 어느 정도나 하면 ‘천사학(Angelology)’이라는 학문분과가 있을 정도이다. 천사는 핀드혼 공동체에서 ‘안내하는 정령(Guide Spiri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가이드 스피릿’인 천사에게 먼저 신고하고 도움을 청한다. 굳이 이들을 분류하자면 ‘정령숭배자(Animist)’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자연물과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정령이 있음을 믿고 이 정령들과의 교신과 조화를 통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기한 것은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래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대부분 애니미스트인 ‘이방인’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켜 왔는데, 오백년이 지난 지금 서양 기독교의 본고장에서는 애니미즘이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20세기 들어와 일기 시작한 ‘에콜로지 운동’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좌우간, 명상의 방에 들어가 빙 둘러앉으니 한 가운데에 천사 그림이 새겨진 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 각자 카드 하나씩을 뽑아든다. 카드의 뒷면에는 상징적인 단어가 한마디씩 적혀 있다. 그 카드를 갖고 한참 동안 명상에 잠긴 뒤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뽑은 카드에는 ‘Purification(정화)’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비교적 초반에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내 바로 앞 차 의 여자가 우는 바람에 이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다. 그 여자는 심리치료사인데 정작 자신의 심리는 치료하지 못해 여기와 울면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나는 ‘정화’라는 단어를 입력시켜 놓고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내 차 가 되어 말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은 지극히 답답했고 평화로웠다. 나는 ‘정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새겼다. “감옥에 있을 때의 내 생활은 지극히 단조롭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했다. 그러나 출옥 후 일년이 지나는 동안 잡다

FINDHORN GARDEN



한 세상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은 상당히 오염 되었다. ‘안내 천사’는 오늘 내게 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 같다”. 그런데 말머리에서 “지극히 단조로웠고… “를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혁, 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목이 메이는 것이었다. 나중엔 눈물까지 줄줄 흘렀다. 사실 이것은 전혀 슬픈 내용이 아니다. 어디에서고 텅텅히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이상스러운 정도로 감정이 폭발쳐 올라왔다. 정말로 어떤 알지 못할 힘에 의해 정화의 작용이 일어난 것일까? 어쩌면 내가 아직도 그 시절의 어려웠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뒤의 모든 참석자들도 자기 느낌을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흐느꼈다. 들어보니 별로 슬픈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다. 눈물은 참으로 감염력이 대단하다. 특히나 자신의 내밀한 상처를 드러내 보일 때는 더욱 그렇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셋째날은 내용도 가장 충실했고 그만큼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다. 오전에 했던 ‘그룹 발견 게임(Group Discovery Game)’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서로 짝을 지어서 상처받아 웅크리고 있는 상대방을 부드러운 마사지와 가벼운 접촉으로 ‘풀어주는(unfolding)’ 게임이었다. 몇몇 참가자는 이 게임을 거부하기도 했다. 잘 모르는 타인에게 자신의 몸을 내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서구인들은 개방적인 연애로 유명하지만 자신의 몸에 타인의 손길이 와 닿는 것은 지극히 꺼린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개방적인 연애는 못하지만 신체접촉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대한 측면이 있다.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예순 넘은 독일 할머니가 내 짝이 되었다.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하 이면 이중에 가장 노인네와 짝이 되었나하며 운도 되게 없다고 내심 서운해 했지만 끝나고 보니 정말 좋은 파트를 만났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먼저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분은 마루 바닥에 마치 누에고치처럼 웅크리고 모로 누웠다. 나는 먼저 발부터 시작하여 부드러운 마사지로 전신의 기혈을 풀어주면서 팔다리를 하나씩 편한 자세로 올

FINDHORN GARDEN

겨 놓았다. 나이 드신 분이래 오히려 마음 편하게 ‘만질’ 수 있었다. 마지막엔 상체를 일으켜 앉힌 다음 뒤에서 포옹을 한 채 한참을 있었다. 이번에 자리를 바꾸어 내가 상처받은 짐승이 되었다. 그분도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갔지만 조금 달랐던 것은 발 마사지에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이다. 발 마사지는 신체접촉 부위가 가장 적은 부위이지만 그 효과는 가장 탁월하다. 이런 것을 알고 또 잘 할 수 있는 젊은 여자는 별로 없다. 그분은 노련한 솜씨로 발의 이곳저곳을 주물러주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발이 풀리니까 손발은 저절로 풀리는 것 같았다. 서로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러웠다. 그후로 이 독일 할머니는 나만 보면 “내 파트너!” 하시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저녁 총괄시간에 많은 참가자들은 이 게임이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하였다. 우리가 서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 개방 풍조나 변창하는 포르노 산업을 보고 이들의 신체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오히려 신체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그들의 관념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역설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개방’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은 ‘나’와 ‘나 아닌 것’과의 동등한 결합 내지는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나 아닌 것’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서구인들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사유화’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유화’에 대한 관념을 갈고 닦아 왔다. 먼저 자연물을 사유화하고, 다음은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사유화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마저 배타적으로 사유화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구조아래 무제한적 상거래니, 지적재산권이니 하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들의 배타적인 소유권이 포기되는 경우는 오직 그에 상응하는 값(시장가격)이 지불되었을 때이다. 그 과정에 진정한 개방과 교류가 있을 자리는 없다. 단지 가격에 일치하는 ‘교환’만이 있을 뿐이다. 신체적 개방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나의 값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개방이 허락된다. 거기에 금전적 거래는 없지만 심리적 거래가 숨어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유연애와 이혼이 빈번한 것은 ‘배타적 소유권에 기한 자유로운 (상)거래’라는 관념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날의 게임에서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움을 느낀 것은 이들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지극

FINDHORN GARDEN

히 당연한 것이다.

핀드혼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것이나 지나쳐 왔던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핀드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집단게임을 통한 인성의 변화는 이들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에 '게임연구소'라는 부설기관을 따로 마련했을 정도이다.

이날의 총괄 시간에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미 때문에 또 한번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돌아가면서 혹은 자유롭게 하루의 일정을 평가하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모두들 한 마디씩하고 난 후에 아이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심각한 얼굴로 귀국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짧은 영어로 “나는 내일 간다.” 하고는 내내 울면서 일본말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것을 옆에 있는 유카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첫째로 의사소통이 안되어 괴롭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데 대학(간호대)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압박은 변함이 없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으며, 이곳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자신의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일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인 유카를 무작정 따라왔던 터였다. 나는 그녀의 귀국 발표와 관련하여 진행자의 무능력에 대해 은근히 화가 났다. 사실이 프로그램은 아이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언어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도중하차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언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진행자는 아이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능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들이는 공동체 정신 아닌가. 이점은 앞으로도 핀드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아이미가 울면서 말하고 있는 사이 모두들 어떡하든 위로를 해 주어야겠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 황망히 바라만 볼 뿐이었다. 아이미는 흥분해서 아까 한 말을 반복하여 말하곤 하였다. 나는 그녀의 맞은 편에 앉아있었는데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부드럽게 진

FINDHORN GARDEN

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어의 불통으로 생긴 문제는 언어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감옥에서 독학으로 익힌 일본말들을 재빨리 주워섬겼다. 별떡 일어나 아이미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일본말로 위로해 주었다.

“아이미, 영어를 못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더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은 아이미는 어깨까지 들먹이며 더욱 서럽게 우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일본 아주머니가 내 말을 영어로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서는 아이미를 감싸고 저마다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날의 총괄시간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진행자는 떠나는 아이미를 위해 뒤 계나마 환송과 축복의 댄스 마당을 마련해 주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넷째날 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활약하는 여자 풍수가 와서 지도한 ‘자연의 사원 3(Landscape Temple 3)’이었다. 이것은 교육장 인근에서 가장 지기(地氣 earth energy)가 왕성한 세 군데를 돌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장소는 명상의 집 바로 앞인데, 경사진 곳이라 그런지 자세가 불안정해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장소가 바로 클루니 힐 최고의 명당자리였다. 그것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산꼭대기 위인데, 바로 질러가면 5분도 채 안 걸릴 거리를 산 정상까지 나선형 오솔길을 만들어 놓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에너지의 상승을 느끼도록 해놓았다. 숲 속을 헤치며 나선형 길을 따라 오르니 과연 비슷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았다. 정상에 오른 참가자들은 모두 빙 둘러서서 손에 손을 잡고 튜닝(조율)을 하기 시작했다.

FINDHORN GARDEN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구음을 내었다. 사람마다 음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하다보면 묘한 하모니가 연출된다. 주위의 숲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집단적인 구음은 계속되었다. 휘영청 밝은 달밤 아래 지기가 승한 특별한 장소에서 벌이는 집단 구음은 뭇지 모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자연과 천지의 기, 그리고 스스로를 낮춘 인간들이 빚어내는 심포니였다. 이것은 아득히 먼 우리 조상들의 자연적인 종교(또는 주술) 행위로부터 빌려온 아이디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천지의 기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적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의식으로 보여진다. 나는 돌아가면 전라도 영광 산 속에 있는 나의 농장에 명당자리를 골라 자연의 사원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풍수가 원래 그러하지만 사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우리에게도 있다. 다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영가(詠歌)라는 전통이 있다.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은 승경지에서 우러나는 흥(일종의 바이오 에너지)을 시조나 노래로 풀어내었다. 영가는 가사나 말 대신에 순전히 구음으로만 자신의 흥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 시각, 그 장소에 진동하는 천지의 기에 자신의 구음을 실어 함께 노니는 것이다. 나중에 흥이 고조되면 춤까지 덩실덩실 추는 경우도 있다. 영가는 굳이 승경지가 아닌 방안에서라도 천지와와의 조율을 꾀하기 위해 할 수 있다. '자연의 사원 3'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풍수지리적 요소(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것-이러한 연구를 그들은 geomancy라고 부른다)와 공동체적 요소(집단구음)를 가미한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 저자 : 황대권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3년간 복역하였다. 감옥 생활 중 오랜 독서와 사색 끝에 새로운 사회는 땅에 근거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출소 후 영광에서 농사를 짓던 중 1999년 국제 엠네스티의 초청으로 유럽으로 가 연재 영국 Imperial College에서 농업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다.